



# “남북 공통 정서는 불교”

## 불교중흥대토론회, 토론자들 남북불교교류 통일 초석 기대

이종석 전 장관과 이승환 민족화해법국민회의 집행위원장은 5월 25일 열린 불교중흥대토론회에서 시종일관 현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흡수통일 기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반면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은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위해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했다. 학담 스님은 통일을 위한 불교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사회주의 진영 붕괴 후 시장 경제 체제 일원화, 북한 체제 위기 심화,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강화 등 통일을 둘러싼 정세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통일 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남북한 이질화,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주권적 실체로서의 북한’과 ‘도덕적 잣대로 판단한 북한 정권’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대하는 북한은 ‘주권적 실체’다. 이런 냉철한 인식이 현

정부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민간의 인도적 지원 허용과 한미·한중 외교 교류, 대화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승환 민족화해법국민회의 집행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며 정부의 ‘흡수통일’ 기조를 비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흡수통일 근본주의로 치닫하고 있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에 나타난 정책기조는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 수준의 변화를 위한 대북압박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냉전해체와 통일을 위해 북핵 포기과 평화체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도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북한의 변화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능할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또 통일을 말할 때는 북한을 주권적 실체로 보는 것 못지않게 ‘잠정적 특수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여준 원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극심한 남북갈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통일 한국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담 스님은 “핵 포기를 전제로 남북대화과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지난 몇 년간의 대북기조는 유효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 이전에 연연한 실체로 존립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상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특수한 조건을 이해하면서 소통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정치적·군사적으로 복잡한 한반도 상황에서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문제는 정치적 이해 등과 연결되면서 이념적 간극이 크다. 사찰 복원 등 비정치적인 사안으로 남북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 관계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원장은 한국 불교가 우선 남북 사회 내부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관심과 역량을 모으고 연기론과 화쟁사상을 통해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당부와 요청에 대해 학담 스님은 남북 공통 정서인 불교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담 스님은 “분단 극복의 실천은 분단이 본래 분단이 아님을 보는 반어(般若)와 분단이 분단 아님도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방편지(方便智)의 길이다. 불교문화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 불교도가 만나 양쪽의 교찰을 참배하고 교류하면 통일을 위한 기반이 마련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맑고향기롭게 내홍 여전

## 회원 양분·정체성 혼란·소통 부재·불신 증폭

전임 이사장 사퇴와 자발적인 정선과 모임으로 안정되는 것 같던 맑고향기롭게(이사장 현장)가 여전히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신임 이사장 현장 스님은 5월 18일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며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3월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이사장 선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반대로 아직까지 이사장 구성과 중앙 사무국장 채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은 홈페이지에서 현장 스님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리고 반박과 재반박의 공방을 펼치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장 스님은 이사장 선출 직후 모둠장 및 서울지역 대의원 모임을 통해 이사장을 구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이사와 회원들이 현장

스님이 구성하려는 이사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들은 사무국장 임명조차 현장 스님이 등기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현장 스님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사장 구성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내홍의 원인을 회원들은 “종교단체와 NGO 사이의 맑고향기롭게의 정체성 혼란, 소통 부재, 불투명한 재정, 명망위주의 이사장 선출”로 분석하고 있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화합을 통한 조속한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 스님은 논란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 서울을 떠나 있는 상태다. 홈페이지에 올린 호소문에서 “합법적인 선출임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출가 이후 가장 건디기 힘든 시간

이다”라고 밝혔다.

이금송 맑고향기롭게 지역모임 대의원은 “이사장으로서 현장 스님이 나서서 6개 지부 본부장 및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아 야 한다. 이를 통해 지부별로 이사 추천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맑고향기롭게는 전 이사장 덕현 스님과 전 이사들의 법정 스님의 저작권 상속 및 절관유지를 두고 시작된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근 본 감사는 “덕현 스님은 이사회에서 출판유언 무효화, 맑고향기롭게를 개인명의 출판사 등록 등을 시도했다. 유언 무효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세가 아니겠나?”라고 비난했다. 덕현 스님도 “정제되지 않은 욕심과 야망, 시기심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연 기자

# 리처드기어, 불교 배우러 한국온다

## 템플스테이, 발우공양 등 한국 불교체험



세계적인 스타인 리처드 기어가 6월 21일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방한한다.

불자로 널리 알려진 리처드 기어가 6월 21일 3

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리처드 기어의 이번 방한은 6월 14일~7월 13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자신의 불교사진전 ‘Pilgrim(순례자)’ 홍보를 위한 것이다.

리처드 기어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불교사진전 전시와 함께 템플스

테이와 발우공양 등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계종 등 주요 종단 예방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리처드 기어의 선 수행과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전시회에는 그가 직접 촬영·제작한 64점과 사진작가 24명이 기어 재단에 기증·제작한 24점의 사진 컬렉션 ‘티벳 포트폴리오’가 선보인다.

노덕현 기자

# 종교계,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 시민사회와 함께 밀가루 5000톤 지원 추진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및 시민사회가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북녘의 식량사정을 걱정하는 중

교·시민사회 모임’은 심각한 굶주림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5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32명의 종교·시민사회인사로 구성된 이 모임에는 불교계에서 풍산 스님(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범불 스님(정도회 지도부), 영담 스님(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나

설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들은 북한이 현재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고, 최소 6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취약계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각계의 지원금과 국민성금을 통해 밀가루 5000톤을 준비해 북한주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물자 반출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이후 적법한 과정을 거쳐 지원물자가 전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분배할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나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해야 한다”며 정부의 유언한 입장과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기범 기자

# 공 하나로 화합하는 이주민 불자들

## 마주협,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아시아 불자 배구 대제전’ 추진

이주민들의 화합과 불교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배구대회가 마련된다.

마하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아시아 불자 배구 대제전’을 추진한다며 5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배구대회는 6월 19일 양천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9개국 10개 팀이 참가해 열띤 시합을 펼친다.

특히 9개국 대사들이 자국 선수

들을 응원하기 위해 참가하고 각 나라별 전통음식과 공연, 의상 등을 선보인다. 배구 외에도 줄타기 등이 진행되며 각국의 특색 넘치는 응원전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단체는 당초 축구 등 다른 종목도 고려했으나 몸싸움이 적고 부상 염려가 낮은 배구가 대회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회는 일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행사로 추진된다.

마주협 남춘호 팀장은 “배구 대회가 불교계 이주민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대회를 통해 이주민 단체 간 네트워크와 협력관계 강화에도 일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규범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장은 “아시아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봉사자들이 이주민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박기범 기자

#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맘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범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정식 계첩을 발급합니다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각 종단 차원의 수계 의식 행사를 별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